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CONTENTS

- 공업정보화부, AI 에이전트 시대 대응을 위해 인터넷주소자원 고도화 추진
- 中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생체 수술까지 넘봤다
- 中 재사용 로켓 첫 성공 : 착륙다리 대신 그물망
- 리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 6대 신흥 주력산업 육성 재강조
- 中, 소비 확대 '15·5' 계획 발표...2030년 60조 위안 소비시장 육성



본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리·작성한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KOSTEC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01 공업정보화부, AI 에이전트 시대 대응을 위해 인터넷주소자원 고도화 추진

정리 (miouly@kostec.re.kr)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처*는 ‘인터넷주소자원 발전 촉진 의견’을 발표하고, IP주소·도메인이름 등과 관련 기반시설을 AI 에이전트·위성인터넷 시대에 맞게 고도화하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26.7.13)

* 공업정보화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데이터국 공동 발표

** 인터넷주소자원은 IP주소·도메인이름·AS번호 등 인터넷주소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설비·기술로, 이를 확충하면 AI·클라우드·스마트 공장 등에서 더 많은 기기와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장애와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배경) AI 에이전트, 사물인터넷, 위성인터넷 등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기기와 서비스를 식별·연결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은 IPv6와 국가도메인 ‘.CN’을 중심으로 인터넷주소자원을 확대해왔으며, 앞으로는 산업·설비·컴퓨팅 자원·데이터·AI 에이전트까지 식별·연결할 수 있도록 주소·식별체계를 확장할 계획
- 인터넷주소자원이 제공하는 명명·주소 지정·검색·연결·교환 기능을 고도화해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배경임

〈중국 인터넷주소자원 및 IPv6 구축 현황〉



출처 : (25.10.29, 中国网信网) 王京涛出席第四届中国IPv6创新发展大会

● (목표) 중국은 2030년까지 인터넷주소자원의 기술·표준·기반시설·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2035년까지 글로벌 인터넷 기반기술의 주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

■ (내용) ‘의견’은 기초기술 혁신, 기반시설 확충, 자원·운영 안전, 활용·서비스, 관리·감독, 국제협력 등 6대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제시

● 관리 범위를 기존 IP주소·도메인이름·AS번호 중심에서 컴퓨팅 자원·데이터·디지털 신원·AI 에

이전트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술·표준·보안·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데 있음

- 특히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IPv6·위성인터넷·AI 에이전트 연결망의 핵심기술과 식별·표준·데이터 교환체계를 고도화

〈인터넷주소자원 고품질 발전을 위한 6대 분야·16개 과제〉

구분	주요 내용
기초기술 혁신	① <u>AI, 양자통신, 블록체인, AI 에이전트 연결망, 위성인터넷 등과 연계해</u> 인터넷 구조, 통신규약, 자원 형태, 보안체계에 관한 기초연구를 강화 ② IPv6 고속 전송, 지능형 자원 배분, 위성인터넷 연결·라우팅 등 핵심기술 개발 ③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터넷주소자원 및 AI 에이전트 연결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중 네트워크 연동과 다중 에이전트 협업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④ IP주소, 도메인, 라우팅 관련 표준을 정비하고, AI 에이전트 연결망, 블록체인, 분산형 식별자 등 신기술 분야의 선제적 표준 제정을 추진
인프라 확충	⑤ 도메인·라우팅 시설을 확충하고 ‘.CN’ 서비스와 IPv6 전용망 전환을 강화 ⑥ <u>AI 에이전트 간 또는 에이전트와 외부 도구·응용서비스 간 연결을 위한</u> 공통 통신규약, 데이터 교환기준, 인터페이스를 마련하고, 위성인터넷·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구축
자원·운영 안전 강화	⑦ IPv6 주소, 신규 최상위 도메인, 자율시스템번호(ASN)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설비·컴퓨팅 자원·데이터·AI 에이전트에 필요한 식별자 체계를 마련 ⑧ 기반자원의 신청·배정·사용 전 과정에 보안기준을 적용하고 중요 데이터 보호를 강화 ⑨ <u>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IP주소·도메인·라우팅 관련 위험을 실시간 분석</u> 하고, 부처·지역 간 위험정보 공유와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⑩ 부처·지역 간 공동 대응, 데이터 백업, 재해복구와 모의훈련을 강화
활용·서비스 고도화	⑪ 기반자원의 수요 맞춤형 배분과 지능형 관리를 확대하고 IPv6·중국어 도메인 활용을 촉진 ⑫ 네트워크·사물·데이터·AI 연결을 강화해 육상·해상·공중·우주 네트워크 통합, 대규모 기기 연결,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
관리·감독체계 정비	⑬ IP·도메인·라우팅과 디지털 신원·AI 에이전트 연결망의 관리기준을 마련 ⑭ 기반자원의 전 생애주기 관리와 불법 도메인·동적 IP·위성인터넷 감독을 강화
국제협력 확대	⑮ ICANN, IETF, APNIC 등 국제기구의 논의와 표준 제정에 참여하고, 국제규칙과 전문기술을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 ⑯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제정책·규칙·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일대일로 참여국 등과 기술표준·응용서비스·네트워크 연계 협력을 확대

참고자료

- ☑ (26.07.13, 工信微报) 明确16项任务！工信部等四部门发文推动互联网基础资源高质量发展
<https://mp.weixin.qq.com/s/60mPTZeXxiVfpJ6BBDpzuQ>
- ☑ (26.07.13, 工信微报) 五问+一图，读懂《关于推动互联网基础资源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https://mp.weixin.qq.com/s/3WYEdSAaMs1fStgDBejQig>

02 中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생체 수술까지 넘봤다

우만주 (yumanshu@kostec.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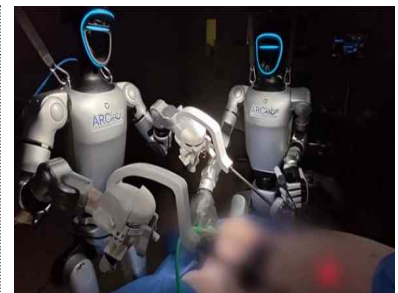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UCSD) 연구진은 중국 유니트리(Unitree)의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활용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실시(26.7.11)

- (연구내용)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격 조종해 살아 있는 동물의 전체 복강경 수술 과정을 수행한 사례
 - 수술은 ▲휴머노이드 로봇 1대와 외과 의사가 협업하는 방식 ▲외과 의사들이 원격 조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총 2차례 진행
 - 제1차 수술에서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2차 수술에서는 경미한 담즙 누출과 출혈이 발생했으나 모두 적절히 처리

* 조작시간은 제1차 수술 약 56분에서 제2차 수술 약 32분으로 단축됐으며, 로봇 재배치 횟수도 8회에서 4회로 감소

〈휴머노이드의 동물 복강경 수술 결과〉

구분	제1차 수술	제2차 수술
수술 대상	약 11주령 돼지	약 16주령 돼지
협업 방식	휴머노이드 1대+의사 1명 보조	휴머노이드 2대 협업
수술 시간	약 56분	약 32분
재배치 횟수	8회	4회
주요 결과	중대한 합병증 없음	경미한 담즙 누출·출혈 발생 후 처리



- (기술경로) 다빈치 로봇이 수술에 최적화된 전용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개발된 반면, 유니트리 G1은 기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술용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적용
 - 다빈치는 전용 로봇팔과 수술기구, 기계적 안전구조를 통해 수술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용 장비 중심' 기술경로를 적용
 - 반면 유니트리 G1은 일반 복강경 기구를 연결하고, 영상 인식과 제어 알고리즘으로 로봇팔의 움직임을 보정하는 '범용 플랫폼·소프트웨어 중심' 기술경로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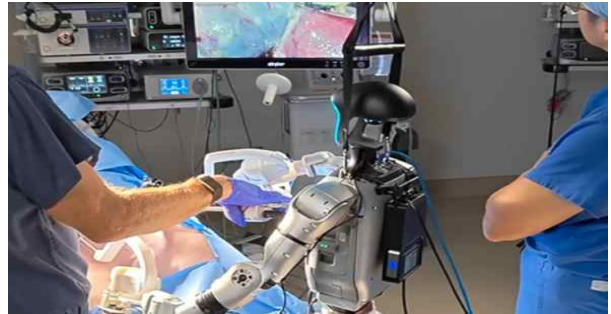
〈유니트리 G1와 다빈치 로봇 비교〉

구분	유니트리 G1	다빈치 전용 수술 로봇
로봇 형태	휴머노이드 로봇	3~4개 전용 수술 로봇팔
크기·무게	높이 약 1.5m, 약 27kg	약 816kg 수준(G1의 약 30배)
수술실 적용	기존 수술실에 이동·배치 가능	넓은 설치공간과 수술실 동선 조정 필요
임상 단계	동물 대상 임상 실증	인체 수술에 광범위하게 활용

다빈치 수술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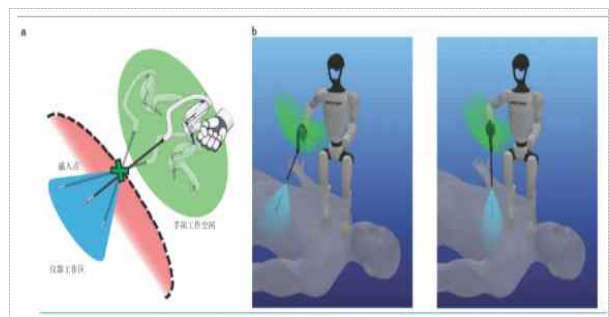
유니트리 G1 로봇



- (연구자)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ature」에 게재됐으며, 중국 출신의 2000년대생 박사과정 연구자 **량쩌카이(梁泽楷)**가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로 참여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의료 분야 활용 가능성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주목

〈참고: 량쩌카이(梁泽楷) 약력〉

- ▶ 2000년 중국에서 출생한 량쩌카이는 2023년 화중과기대학 치명학원(启明学院)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UCSD)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 ▶ 현재 UCSD 마이클 입(Michael C. Yip)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바디드 AI와 의료용 로봇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음



- (전망) 현재 수술 중 반복적인 위치 보정과 멸균체계 미비 등 기술적 한계가 있으나, 향후 제어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성능이 개선되면 수술 시간 단축과 안정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 ☑ (26.07.09, 医学界) 全球首次！用宇树机器人做手术，中国00后博士登Nature
<https://mp.weixin.qq.com/s/Ad-CWit9fulE-fDBEtA-Cg>
- ☑ (26.07.08, nature) In vivo feasibility study of humanoid robots in surgery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6-10796-x#code-availability>
- ☑ (26.07.15, 科技思维) 27公斤人形机器人完成活体手术 成本仅达芬奇零头
<https://baijiahao.baidu.com/s?id=1870752255147273134&wfr=spider&for=pc>

03 中 재사용 로켓 첫 성공 : 착륙다리 대신 그물망

정리 (miouly@kostec.re.kr)

■ 중국은 7월 10일 하이난 상업우주발사장에서 창정(長征)-10B 운반로켓을 발사해 위성을 예정 궤도에 투입하고, 해상 플랫폼의 그물망 포획 시스템을 이용해 1단 추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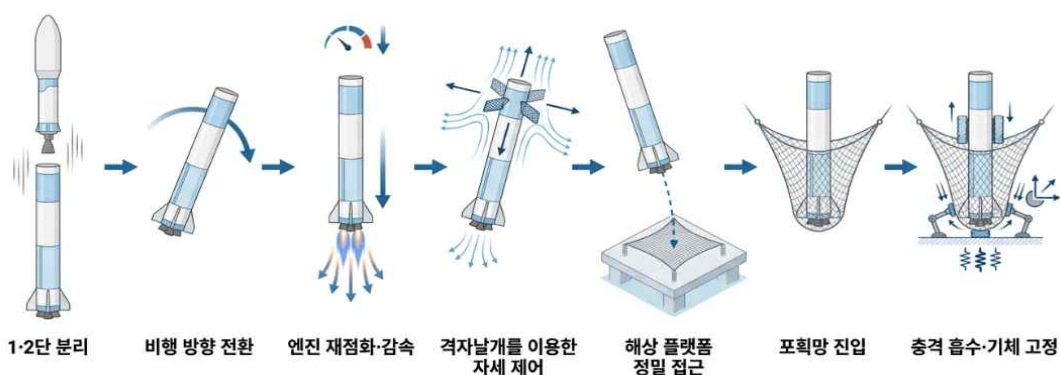
- (개요) 이번 발사는 중국이 운반로켓 1단 추진체를 제어해 회수한 첫 사례이며, 해상 그물망을 이용한 로켓 회수로도 세계 최초
- 창정-10B는 중국항천과기그룹 산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재사용형 액체연료 상업용 운반로켓으로, 저궤도 위성인터넷망 구축과 대형 상업위성 발사 등에 활용될 예정
- 위성을 궤도에 투입한 뒤 분리된 1단 추진체는 약 6분간 귀환 비행을 거쳐 해상 플랫폼의 그물망에 포획돼 회수됨

〈2025년도 중국 국가과학기술상 수상 현황〉

〈창정-10B 발사 및 1단 추진체 해상 회수 현장〉		〈창정-10B 운반로켓 주요 제원〉	
		전체 길이	약 63m
		직경	5m
		발사 중량	약 760톤
		발사 추력	약 890톤
		저궤도 운반 능력	재사용 방식 기준 16톤
		주요 용도	저궤도 위성인터넷 구축, 대형 위성 발사 등

- (회수 과정) 1단 추진체는 2단과 분리된 뒤 비행 방향을 전환하고, 엔진과 격자날개를 이용해 속도와 자세를 조절하며 해상 플랫폼으로 귀환
- 특히 바람과 파도로 움직이는 해상 플랫폼과 하강하는 추진체의 위치·자세를 실시간으로 보정해 포획 지점에 진입하도록 함

〈창정-10B 1단 추진체 회수 과정〉



* 중국 과기일보의 회수 과정 설명을 바탕으로 KOSTEC에서 재구성

- **(포획 방식)** 이번 회수에는 추진체가 착륙다리로 플랫폼에 직접 내려앉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플랫폼의 격자형 고강도 그물망과 추진체의 걸이 장치를 이용해 공중에서 포획하는 방식을 적용
- 그물망은 포획 가능 범위를 넓혀 착륙 위치 오차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착륙다리를 제거해 추진체 구조를 단순화·경량화함으로써 운반 능력을 높일 수 있음

〈착륙다리 방식과 그물망 포획 방식 비교〉

구분	수직착륙 방식	그물망 포획 방식
회수 방법	엔진을 정밀 제어해 착륙다리로 플랫폼에 착륙	플랫폼의 그물망이 추진체의 걸이 장치를 포획
로켓 구조	착륙다리와 관련 장치 필요	착륙다리 대신 포획용 걸이 장치 적용
주요 장점	반복 회수 사례가 축적돼 기술 성숙도가 높음	구조 경량화, 운반 능력 확대, 착륙 오차 대응 범위 확대
기술 과제	정밀한 엔진 제어와 착륙 후 균형 유지	추진체와 해상 플랫폼의 위치·자세 동기화 및 충격 흡수

참고자료

- ☑ (26.07.10, 新华网) 我国运载火箭，首次实现可控回收！
https://mp.weixin.qq.com/s/J6GI-A1J_k9JP2RZefN7zA
- ☑ (26.07.13, 科技日报) 一张大网如何接住返回的火箭？深度解读回收全过程及关键技术→
https://mp.weixin.qq.com/s/rw7_N8C96HQ6YvK-qWMOX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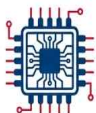
04 리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 6대 신흥 주력산업 육성 재강조

정리 (miouly@kostec.re.kr)

■ 중국 국무원은 7월 10일 리창(李强)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신흥 주력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집적회로·항공우주·바이오헬스·저고도경제·신형 에너지저장·스마트 로봇 등 6대 분야의 규모화를 본격 추진

- (배경) 회의는 202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산업혁신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일정 수준의 기술과 시장 기반을 갖춘 신산업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
 - 신흥 주력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산업 가운데 단기간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생산·투자·고용과 연관 산업의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의미
 - 정부업무보고는 중앙·국유기업이 응용 현장을 먼저 개방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도록 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개발부터 실증, 생산, 시장 확대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방향 제시

〈중국이 중점 육성하는 6대 신흥 주력산업〉



집적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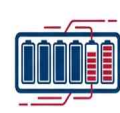
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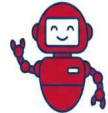
바이오헬스



저고도경제



신형 에너지저장



스마트 로봇

- (추진 방향) 회의는 기초연구와 핵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현장 적용, 생산 확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연계해 6대 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제시
 - 하나의 기술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기술방식을 동시에 개발·검증해 기술 변화와 실패 위험에 대응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
 - 지역별 산업 기반과 강점을 고려해 차별화된 육성을 유도하고, 규제 방식을 개선해 중복투자와 획일적인 산업 경쟁을 방지

〈6대 신흥 주력산업의 4대 육성 방향〉

구분	주요 내용
규모화	• 기초연구·핵심기술·생산·시장을 연결해 양산 능력과 비용 경쟁력 확보
복수 기술경로	• 여러 기술방식을 동시에 개발·검증해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과 실패 위험 완화
수요 기반 실증	• 산업 현장의 수요를 기술개발에 반영하고 실제 활용 과정에서 성능과 사업성을 검증
지역별 특화	• 지역의 산업 기반과 강점에 맞춰 분야를 차별화하고 중복투자와 과잉 경쟁 방지

■ 중국은 6대 신흥 주력산업의 관련 생산액을 2025년 약 6조 위안(약 1,324조 원)에서 2030년 10조 위안(약 2,207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새로운 경제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

- 6대 산업은 분야별로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생산 확대와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핵심 장비·부품 확보와 안전성 검증, 제도·인프라 구축이 향후 규모화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중국 6대 신흥 주력산업의 주요 실적과 발전 현황〉

분야	주요 지표(2025년 기준)	주요 현황
집적회로	산업 규모 약 2조 위안(약 441조 원) 생산량 전년 대비 10.9% 증가	28나노 이상 성숙공정은 대량생산 기반을 확보했고 14나노 공정도 양산 단계에 진입 - 첨단 패키징과 반도체 장비 분야의 국산화가 진행 중이나, 첨단 공정·노광장비·고급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취약
항공우주	상업우주 시장 약 2.8조 위안(약 618조 원)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추산	재사용 로켓과 저궤도 위성인터넷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유기업이 핵심 체계를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발사체·위성 제조·응용서비스 분야에 참여
바이오의약	혁신신약 76개 승인 중국산 비중 80% 이상	- 복제약 중심에서 혁신신약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항체·세포·유전자치료 분야가 성장 2025년 해외 기술수출 계약은 100건 이상, 총 계약 규모는 1,300억 달러를 상회
저고도경제	시장 규모 약 1.5조 위안(약 331조 원) 2035년 3.5조 위안 전망	드론과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중심으로 물류·순찰·측량·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실증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고도 통신·항법·공역관리 인프라 구축이 병행
신형 에너지저장	누적 설비 1.36억kW·3.51억kWh '13차 5개년' 말 대비 40배 이상 증가	- 리튬이온전지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고체전지·나트륨이온전지·액류전지·압축공기·수소저장 등 복수 기술방식이 확대 - 독립형 저장설비 비중은 전체의 51.2%
스마트 로봇	시장 규모 1.2조 위안(약 264조 원) 로봇 산업 매출 약 8,900억 위안 추산	- 산업용 로봇에서 휴머노이드·의료·물류·돌봄 로봇으로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AI 대형모델과 인바디드 AI의 결합이 가속 -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은 2025년 말 868개로 집계

참고자료

- ☑ (26.07.11, 新华网) 国务院常务会议解读|国务院常务会议研究新兴支柱产业培育有关工作
<https://www.news.cn/politics/20260711/616515e30cb244c4b846a5c55b25bda9/c.html>
- ☑ (26.07.13, 新浪财经) 国常会部署新兴支柱产业培育 全链条发展锻造新质生产力战略支点
<https://finance.sina.com.cn/roll/2026-07-13/doc-inihqzxq9200242.shtml>

05 中, 소비 확대 '15·5' 기획 발표...2030년 60조 위안 소비시장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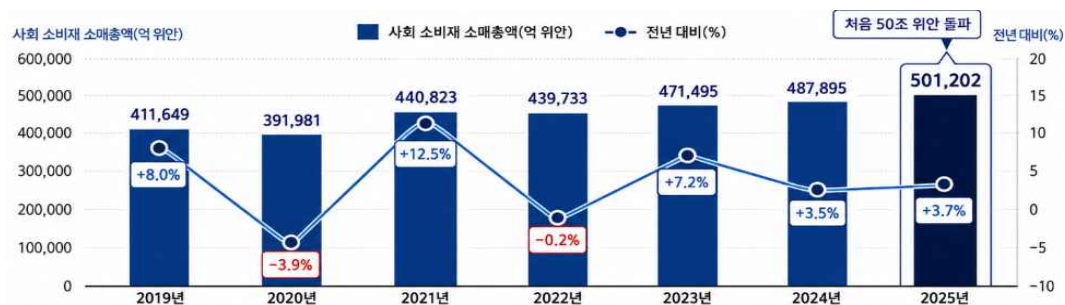
우만주 (yumanshu@kostec.re.kr)

■ 중국은 「소비 확대 '15·5' 기획」을 통해 2030년까지 사회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을 약 60조 위안(약 1경 3,127조 원)으로 달성하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

● (현황 및 목표) 25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약 50.1조 위안(1경 947조 원)으로 처음 50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약 60조 위안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제시

*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6~2030년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이 연평균 약 3.7%의 명목 증가율을 유지해야 함

〈참고: 중국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변화추이(19~25년)〉



* 출처: https://mp.weixin.qq.com/s/EBxOqMaG3HsMeSn_hHw9tQ

● (추진 방향) 이번 정책은 ▲서비스 소비 활성화 ▲상품 소비 확대 ▲신 소비시장 육성 ▲소비기반 강화 ▲소비환경 개선 ▲소비 지원체계 정비 등 6대 분야에서 총 28개 중점과제를 제시

〈소비 확대 '15·5' 기획의 6대 분야 추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서비스 소비 활성화 ①~⑦	- 외식·숙박·가사서비스의 품질과 표준을 높이고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 고령자 돌봄, 보육, 문화관광, 건강, 체육, 교육·직업훈련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공급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돌봄·교육·문화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상품 소비 확대 ⑧~⑪	- 주택·자동차·가전·가구 등 대형 내구재 소비를 확대하고 노후주택의 고령친화·스마트화를 지원 - 농식품·의류·생활용품·스포츠 장비 등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중고급 상품 공급을 확대 - 맞춤형 생산과 유연생산을 확산하고, 중국 소비재 브랜드와 자체 지식재산권을 육성
신소비시장 육성 ⑫~⑮	- 웨어러블, 지능형 로봇 등 디지털 제품 소비를 확대하고, 교육·의료·문화·관광 분야의 AI 활용 촉진 - 녹색 소비, 최초 출시 경제(First Launch Economy), 체험형 소비 등 새로운 소비 형태와 융합형 소비 시나리오를 육성
소비기반 강화 ⑯~⑳	- 무비자·항공·결제·면세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의 중국 내 소비를 확대 - 취업 우선 전략을 통해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 - 임금·사업·재산소득을 확대하고, 최저임금과 소득분배 제도 개선 - 연금·의료·실업·산재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강화하고 교육·의료·돌봄 등 공공소비 확대

구분	주요 내용
소비환경 개선 (21~25)	- 상품·서비스의 품질·인증·표준체계를 정비하고 소비자 신고·분쟁 해결과 환불제도를 개선 - 플랫폼·온라인 판매·라이브커머스·선불소비 등에 대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 - 국제소비 중심도시, 지역 상권, 현·향·촌 물류망, 주차·충전·통신 시설 등 소비기반을 확충
소비지원체계 정비 (26~28)	- 자동차·주택·공연 등 분야의 불합리한 구매·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 소비자 직접 지원, 소비 대출 이자지원, 소비기반시설 투자 등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 - 유급휴가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고 탄력적 휴가와 초·중학교 봄·가을 방학 도입을 지원

- (프로그램) 이번 정책은 ▲실버 경제 육성, ▲육아 제품·서비스 확대, ▲문화·관광 소비 활성화, ▲건강 소비 촉진, ▲빙설 소비 확대 등 9개 주요 프로그램을 마련

특별과제	주요 내용
① 실버경제 육성	- 고령친화 생활용품, 재활 보조기기, 고령자 식품 등의 연구개발과 공급을 확대하고, 식사·돌봄, 건강·휴양, 노인교육 등 서비스를 확충 - 실버산업 집적단지화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관련 표준·인증체계를 정비
② 육아제품·서비스 확대	- 영유아의 식생활·이동·교육 등에 필요한 우수 제품을 다양화하고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 - 소아 의료, 가족 체험·놀이·체육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간을 아동 친화적으로 개선
③ 문화·관광 소비 활성화	- 박물관·문화유산 특별전과 문화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와 다른 산업 간 융합 촉진 - 야간 문화관광 거점, 근교·교육·산업관광 코스와 휴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열차·휴게소·크루즈·야간관광 등 새로운 소비모델 육성
④ 건강 소비 촉진	- 약국의 의약품 상담과 디지털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해 1만 개 이상의 '건강상점'을 조성 - 건강소비 촉진행사를 통해 상업·관광·문화·체육 분야의 연계를 확대
⑤ 빙설 소비 확대	- 빙설 스포츠대회, 공연, 축제 등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빙설 산업단지를 조성 - 빙설 장비 우수 제품 목록을 마련하고 관광지·휴양지와 생활권 내 빙설시설을 확충하며, 품질평가·안전관리·비상대응체계를 정비
⑥ 자동차 소비 활성화	- 자동차 유통개혁 시범사업을 통해 중고차·폐차·정비·개조 등 후속 시장을 활성화 - 신 에너지차 정비기준과 자동차 개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캠핑카 시설과 자동차 경기·대중 참여형 행사를 확대
⑦ 농산물 소비 촉진	2030년까지 녹색·유기 인증 농산물을 13만 개로 확대하고, 손질 농산물·중앙주방 등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육성
⑧ 'AI+소비' 추진	- 소비 분야 AI 기술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 - 주거·돌봄·문화관광 등에서 AI 소비 서비스와 체험센터를 조성
⑨ 소비 기반 시설 확충	1만 2,000개의 '15분 생활권'을 조성해 주민 만족도 90% 이상, 상업점포 체인화율 30% 이상을 달성 - 충전소를 약 4,000만 개로 확대하고 충전기를 약 900만 개 구축해 1억 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지원

참고자료

☞ (26.06.17,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印发《实施就业优先战略“十五五”规划》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606/content_7072481.htm

최근 이슈리포트 발간 리스트

순번	제목	시기
1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 위기의 진단과 해법	26.07.03
2	‘14·5규획’과 중국 과학기술 성과 - 정책, 생태계 및 혁신체제로 본 중국의 과기혁신 성과 -	26.05.12
3	제15차 5개년 규획과 중국의 산업·과학기술 재건	26.03.21
4	양회(兩會)에서 제시된 2026년 중국 과기혁신 과제	26.03.21
5	제15차 5개년 규획으로 본 중국의 전략 대전환 - 중국은 다음 5년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	26.03.06
6	빅사이언스로 보는 중국 과학기술 자립의 엔진 - 10대 중추 인프라 구축 동향을 중심으로 -	26.02.12
7	중국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전주기 파이프라인 : 조기 영재교육 → 대학 엘리트 트랙 → 해외 인재 유치	26.02.09
8	중국은 무엇을 성과로 제시하는가 - 관용 매체 발표로 본 과학기술 혁신 성과 -	26.01.23
9	중국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의 현재 좌표와 기술은? - 산업별 현황·지역 분포·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	26.01.23
10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③ : 연구개발 성과	25.11.07
11	중국 ‘제14차 5개년 규획’의 성과와 전망	25.10.24
12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② : R&D 인력	25.10.24
13	중국 R&D 생태계 :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25.10.24
14	중국 전자상거래의 글로벌라이제이션 -Temu·SHEIN·AliExpress·TikTok Shop을 중심으로-	25.09.19
15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R&D예산)	25.09.09
16	미·중 경쟁의 새 전장,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혁신	25.09.02
17	중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국제 비교	25.08.22
18	2021~2025년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지형변화	25.07.31
19	딥시크 이후, 진격의 중국 AI	25.07.30
20	기술패권 흔들리나…中, AI에서 우주까지 美 맹추격	25.06.20

주간동향 기사 분류 체계

중국 14.5 계획 (중국 국무원, '21.3월)	중국 6대 미래 산업 (중국 공신부 등 7개 부처, '24.1월)		한국 12대 전략기술 (한국 과기정통부, '23.12월)
1. 차세대 인공지능 2. 직접회로 3. 양자정보 4. 뇌과학 및 뇌모방 연구 5. DNA 및 바이오 기술 6. 임상 의학 및 건강 7. 심공, 심지 및 극지	1. 미래제조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레이저 제조, 순환 제조, 공유 제조, 스마트 제어/센싱, 산업 인터넷, 메타버스 등	1. 인공지능 2. 첨단 로봇/제조 3. 차세대 통신 4. 반도체/디스플레이 5. 사이버 보안 6. 양자 7. 첨단 모빌리티 8. 수소 9. 이차전지 10. 차세대 원자력 11. 우주항공/해양 12. 첨단 바이오
	2. 미래정보	차세대 이동통신, 위성 인터넷 양자정보, 양자/광자 컴퓨팅 대규모 언어 모델 등	
	3. 미래재료	비철금속, 화학공업, 비금속 무기재료, 고성능 탄소섬유, 첨단반도체, 초전도 소재 등	
	4. 미래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 미래 에너지 장비, 태양전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5. 미래공간	유인 우주비행, 달탐사, 위성항법, 도심항공교통 심해작업 설비, 극지자원 탐사, 도시 지하공간 개발 등	
	6. 미래건강	세포 유전자기술, 합성생물학, 바이오육종, 5G/6G, 메타버스, AI 활용 의료서비스, 디지털 트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CHINA
SCIENCE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 발 행 일 | 2026. 07. 20.

| 발행기관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발 행 처 | 주소 : 북경시 조양구 주선교로 갑12호
전자성과기빌딩 1308호(100015)
TEL : 86)10-6410-7876/7886
<http://www.kostec.re.kr>

